

고농도 유입 하수처리장 오염 개선

인천 승기·부산 강변·대구 달서천 성과

환경부가 상반기 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통해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던 인천 승기하수처리장, 부산 강변하수처리장,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 등 3곳의 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에 대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를 낮추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비정상적 정상화' 과제인 '불법 폐수배출 관행근절'을 위한 것이다.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주축으로 부산·인천·대구 지자체, 하수처리장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12일 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단속 전인 6월 초 COD 농도가 1618.5mg/L였던 인천 승기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는 단속 이후인 6월 중순 490.1mg/L를 기록했다.

부산 강변하수처리장은 253.9mg/L에서 202.7mg/L로 개선됐으며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도 527.1mg/L에서 132mg/L로 대폭 낮아졌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150개 사업장 중 40곳(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26.6%)했다.

위반 사항 중 폐수무단방류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15건, 폐기물유출 1건, 대기방지사설 부적정운영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

고 1건 등 22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대기방지사설 훼손방치 9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기타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7건 등 20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산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부산시 강서구 소재)은 슬러지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응축폐수를 화학처리 장치 없이 배출할 수 있는 불법배출관을 설치해 총질소(T-N) 농도가 321.9mg/L(수질기준 60mg/L)로 수질기준을 5.3배 초과한 420톤의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형제산업(대구 북구 소재)은 금속 연마폐수를 화학 반응조에 약품과 침전도 시키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무단배출해 COD 농도가 8,608.6mg/L(수질기준 130mg/L)로 수질기준을 66.2배 초과한 57.5톤의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안성공업사(대구 북구 소재)는 폐수 배출시설인 금속제품 제조시설(절삭유 저장시설 용량 3.3㎡, 기준용량 0.1㎡)을 설치·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절삭유가 포함된 청소수(COD 4,904.9mg/L)와 폐기물인 폐유(기름성분 414,310.0mg/L)를 우수(빗물)로 배출시키다 적발됐다.

한창정밀(대구 북구 소재)은 폐

수 배출시설인 금속제품 제조시설(절삭유 저장시설 용량 0.7㎡, 기준용량 0.1㎡)을 설치·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고 금속 스크랩 보관장에서 절삭유를 역시 우수(빗물)로 배출(COD 12,012.0mg/L)시키다 적발됐다.

(주)효산PL(인천 남동구 소재)은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실험실 110㎡(기준 10㎡)를 설치·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고 역시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로 배출(COD : 381.4mg/L)시켰다.

현대노즐(인천 남동구 소재)은 폐수배출시설인 금속제품 제조시설(절삭유 저장시설 용량 10㎡, 기준용량 0.1㎡)을 설치·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폐수관로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위반업체의 40%인 16곳의 업체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미신고 배출업체 중 14곳은 절삭유 취급 금속제품제조업(선반, 밀링 가공 등)으로 사업자의 인식 부족, 지자체 단속여건 악화(경기 침체, 단속의지 부족 등)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신고 배출업체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할 개연성이 높고 지도·단속 대상에도 제외돼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환경부는 미신고 배출업체에 대

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규모의 공장이 등록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확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시설 설치확인 의무화 규정 신설이전이라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미신고 배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고 폐수 배출업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 협업, 홍보·교육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간헐적으로 고농도로 유입되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유입수 안정화시설(유량조정조, 완충저류조 등) 설치, 폐수계열과 생활하수를 분리 처리하는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수처리장에 관로관리 책임을 부여해 취약시간대 관로조사, 특별단속 등 무단배출업체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배출시설 관련규정을 미숙지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장등록업체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규정 등 맞춤형 환경교육도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제 낭비를 초래한다"며 "적극적인 불법폐수 단속은 국제 낭비를 막고 친환경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명병로 기자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 개설

불법산악회 신고방

국립공원관리공단 | 안전계령 | 불법산악회 신고방

불법산악회 신고방
국민이 참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입니다.

이 곳 불법산악회 신고방은 국민 의견이 공익(자연생태)을 침해하거나 탐방로 산악회 신고방을 신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인공(사무소)과 공익(자연생태)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제명단 : 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 규정에 따라
작성됨인, 야간산행, 흡연, 취사, 야영(비박)행위 등

국립공원을 야간고 사행하는 국민 여객본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산악회 신고방 참여 >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경관리부장은 "이번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 운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산악회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올해 시행하고 있는 착한산악회 인증제와 함께 적용해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의 탐방인구가 매년 증가(2012년 3,725만명, 2013년 3,902만명, 2014년 3,933만명)함에 따라 불법행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입금지위반은 2012년 956건, 2013년 1229건, 2014년 1,24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영 및 비박 행위도 2012년 60건, 2013년 70건, 2014년 84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 규정에 따라 셋길출입, 야간산행, 흡연, 취사, 야영(비박)행위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적발 시 관련법에 근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심찬섭 기자

해양오염사고 증가, 유출량 감소

국민안전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주원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해역에서 121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365㎏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103건) 대비 건수는 18건 증가하고, 유출량은 1,243㎏ 감소한 수치다. 사고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은 어선의

사고가 19건에서 38건으로 약 2배 정도 늘었기 때문이다.

유출량이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여수 GS칼텍스 부두에 유조선이 충돌해 원유 등 기름 899㎏가 유출된 사고와 부산에서 선박간 충돌로 화물선에서 기름 237㎏가 유출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염사고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총 121건 중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침수 등 해난이 그 뒤를 이었다. 부주의의 사고는 기름 이송작업 중 공·수급 중 관리 소홀, 장비 조작미숙 등이며 특히 선박 급유·기름이송 등 유류작업 중 사고가 33건으로 나타나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찬섭 기자

경찰청, 철도 범죄·사고 국토부와 합동수사본부 설치

국토교통부는 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철도사고의 수사업무 협력을 위해 경찰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철도치안은 국토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중요철도사고, 살인, 방화, 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과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체결했다.

중요 강력사건 등에 대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관을 지원하고 수사를 분담하도록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명수배자 발견이나 수사관찰이 다른 피의자 체포 할 경우 즉시 통보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

사 효율화를 위한 업무지원 등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협정을 체결한 뒤, 국토부 철도국장(손병석)과 경찰청 수사국장(정용선)은 "철도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수사공조체계 구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 기관의 수사업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5 호
(간행 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발행인 주식회사 신동아방송 이신동
편집인 우도명 인쇄인 윤형수

<p>대표전화: 02-846-9300 팩스: 0505-300-8014 e-mail: www.ecots7@naver.com 홈페이지: www.sdatv.co.kr www.신동아방송.com</p>	<p>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411, 601호(대림동, 태성빌딩) 구독료: 월 1만 5000원 연 18만원</p>
---	--

광고문의 / 구독신청 02)846-9300 등록번호 서울 가50079

신입용사지원부 에너지안전특공단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 100W 줄이기 꼭 함께 해요!”

모두가 힘을 모으면 올 여름 전력위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문 닫고 냉방으로 더 시원하게!
실내온도는 시원한 기계에서 4도 낮게요

여름철 건강온도 26℃!
시원한 옷차림에 건강온도 지켜주세요

오후 2시~5시에는 잠깐 실천!
하루 중 전기가 가장 부족한 시간은 오후 2시~5시입니다

안 쓰는 플러그 뽑기는 기본!
플러그 뽑기대기전에 차인전으로 6%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어요

“한 사람 100W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방법

① TV 1대 끄기 ② LED등 2개 끄기 ③ 에어컨 30분 쉬기

■ 문 닫고 냉방, 26℃ 온도세팅 등의 절감시간은
평일 오후 2시~5시입니다. (주말·공휴일 제외)